

〈유봉선전〉 연구*

- 이본 소개 및 관련 작품 서사단락 대비를 중심으로

허순우**

〈차 례〉

1. 서론
2. 〈유봉선전〉의 서지 사항과 경계
3. 〈유봉선전〉 이본의 대비
4. 〈이대봉전〉의 자장과 〈유봉선전〉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그간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전소설, 〈유봉선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유봉선전〉을 <기연회보록〉의 이본으로 소개한 기록이 있지만 충남대본 〈유봉선전〉이 낙장본이어서인지 <기연회보록〉과 비교하는 본격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15세 소저가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고령본 〈유봉선전〉을 접하게 되어, 이 기회에 충남대본과 고령본 〈유봉선전〉을 함께 두고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작품이 <기연회보록〉의 이본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확인하였다.

두 책 모두 낙장본이긴 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먼저는 고령본 〈유봉선전〉과 충남대본 〈유봉선전〉의 서지사항, 경계 등을 정리하고, 필사상의 같고 다름을 확인하는 이본 비교를 했다. 그 결과 두 책 모두 초고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고령본에 비해 충남대본이 정확하게 어휘 등을 구사하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고령본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책에서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상호 보완되는 지점을 확인

* 이 과정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했고, 필사가 중단된 지점 대비를 통해 이본 간 필사자의 관심사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다음으로는 <유봉선전>이 <기연회봉록>의 이본이 아니라면 어떤 작품과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다. 작품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이대봉전> 계열 작품들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대봉전>, <이봉빈전>과 서사 단락을 비교하고 차이점과 공통을 제시함으로써 <유봉선전>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전하는 <유봉선전> 이본은 둘 모두 낙장본이고, 서사 전개가 매끄러운 것도 아니라 잘 찢인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이러한 형태의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면, 습작 시도나 모방작의 창작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개별 작품 <유봉선전>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리고,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친 고전소설의 창작과 향유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편의 작품을 더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유봉선전, 이대봉전, 이봉빈전, 이본 비교, 모방작, 문화 현상

1. 서론

본 연구는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는 고전소설 <유봉선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유봉선전>은 조희웅의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등에 작품명이 언급되어 있다.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에서는 <기연회봉록>의 다른 이름이 <유봉선전>과 <유봉상전>이고, 필사본 <유봉선전>이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했다.¹⁾ <기연회봉록>과 <유봉선전>, <유봉상전>을 제목이 다른 동일 작품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소장 <유봉선전>(이하, 충남대본)을 확인한 결과 <기연회봉록>과 이본 관계에 있는 작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1)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7,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96, 104쪽.

에서는 <기연회봉록>을 “남주인공 ‘유봉상’이 여주인공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 유봉상이 황채란, 전학선, 손농선, 채혜운 등과 결연한 후 이들이 겪는 고난과 극복 과정 등을 그렸다.”²⁾라고 소개했으나 <유봉선전>은 여주인공 유봉선이 부모를 잃은 후 남장하여 입신양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연회봉록>을 소개한 선행연구에서도 <기연회봉록>의 내지에 ‘유봉상전’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유봉상전>을 <기연회봉록>의 다른 제목으로 볼 수 있다고는 했으나 <유봉선전>과 <기연회봉록>의 관련성이나 <유봉선전>과 <유봉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³⁾

그간 <유봉선전>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는, 이미 공개된 충남대본이 작품의 서두와 결말이 없는 낙장본이고 필사기 등도 없는, 즉, 작품에 대한 내외적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책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령의 현풍 곽씨 집안이 소장하고 있는 <유봉선전>(이하 고령본)을 접할 기회가 생겨 두 작품을 함께 두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충남대본과 고령본 모두 낙장본이므로 작품의 전모를 알 수 없는 한계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두 책이 상호 보완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를 대비해보면, 단독으로 작품을 검토할 경우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본의 존재는 이 작품이 복수의 독자에게 향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독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봉선전> 연구의 첫 작업으로서 작품의 서지 정보, 경계를 정리하고 이본 대비를 통해 작품의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유봉선전>과 서사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대봉전> 계열 작품과 <유봉선전>의 서사 단락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영웅소설 안에서 <유봉선전>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2) 조희용(2017), 위의 책, 96쪽.

3) 이선형, 「〈기연회봉록〉 연구」,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72쪽 참조.

위한 토대를 마련해보려 한다.

2. <유봉선전>의 서지 사항과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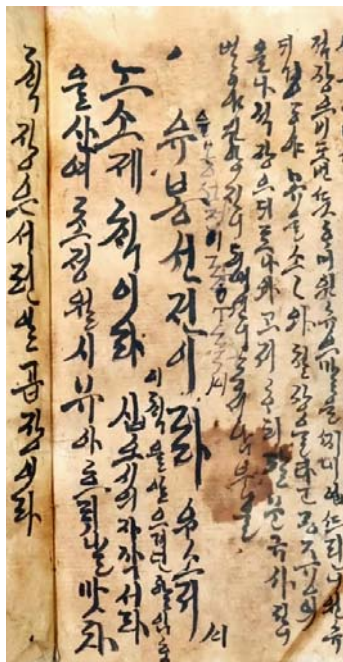
1) 서지 사항

충남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충남대본은 표지에 “유봉선전 단권”이라는 정보가 펜으로 적혀 있으며, 작품의 시작부와 후반부가 없는 낙장본이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총 139면이고, 각 면 당 평균 12행, 행 당 평균 18자 정도가 필사되어 있다. 충남대본은 유 승상과 김 승상이 자녀들의 혼사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반란군 강문철 일당은 물론이고 그와 동맹을 맺은 축국, 위국을 차례로 정벌한 유 승상의 딸 유봉선과 김 승상 그리고 승상의 아들 김준이 함께 귀환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문장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로 책면의 끝줄까지 필사되어 있으며⁴⁾ 필사기도 없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그 뒤 내용까지 필사하였으나 뒷장이 탈락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반란 세력을 무찌른 것에 대한 포상은 이루어졌지만, 이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일종의 후일담과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 작품이 마무리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고령본은 고령의 현풍 곽씨 집안 소장본이다.⁵⁾ 책은 표지를 제외하면 총 68면이며 충남대본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서두와 후반부가 없다. 각 면 당 11-12행, 행 당 19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으며 충남대본에 비해 글자를 흘려 썼다. 고령본은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유 승상 부부가 선관의 고지로 딸 유봉선을 낳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유봉선이 강문철 일당과 대결하는

4) 마지막 면 마지막 문장이 “이날 직시 황궁ᄃᆞ실시 봉선으로 선봉을 삼으시고 축왕은 선봉ᄃᆞ장이 되□ □□□□중”까지 필사되어 있다.

5) 할머님의 유품인 <유봉선전>을 보관하여, 연구의 자료로 제공해주신 곽상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전쟁 장면에서 필사가 중단되었다. 첫 장 첫 문장이 “늑기 의탁 하리요”(고령, 1면)로 시작하고,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의 끝 문장이 “원슈 덕경하야 몸을 소소와 철장을 타고 공중의 올라 적 장으 뒤로 나와고저 하되 팔문금사 진니 번하야 원앙진니 되여신니 동서남북을”(고령, 67면)에서 끝난 것을 보면, 본래부터 작품을 종결부까지 필사한 것은 아닌 듯하다.

고령본에는 간략한 필사기가 있어서 작품의 제목, 작품이 향유된 시기와 향유층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제시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위

에서 언급한 마지막 문장에 이어 “유봉선전이라”라고 적어 이 작품의 제목이 <유봉선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 “노 소제 칙이라 십오시의 자작서라 을산여 초 정월 시부아흐리 날 맞차 칙장은 서런일곱 장이라”(고령, 67-68면)⁶⁾라고 하여 노 소저가 이 책을 15세에 자작하였으며 쓰기를 을사년 초 정월 십구일에 마쳤고 책장은 총 37장이라는 정보 등을 주었다. 한편 작품 중반부뿐 아니라 본문 6-11면 상단에도 낙서가 있는데, 노 소저의 이름은 盧鳳艾이며, “십오시의 즈죽필서라. □□준니라 연광이

6) “유봉선전이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쓴 “유 소저 이 칙을 일으켜던 할입혹시”(고령 67면, 이하 원문을 인용할 때는 고령과 충남대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해당 면을 쓰겠다.)는 필사 정보가 아니라 작중 인물인 소저 유봉선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 내용에 따르면 남장을 한 유봉선이 과거에 급제한 후 받은 첫 관직이 ‘한림학사’이다.

십육시□□인상이라 흐며”라고 되어 있다. 판독이 어려운 몇 개 글자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노봉애라는 15세 여성이 작품을 자작필서 한 후 16세의 어떤 인물에게 주었다는 내용으로 읽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필사기에 등장하는 노 소저의 이름은 노봉애이고, 노봉애 소저가 <유봉선전>을 필사하여 16세의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인데, 본래 책을 소장한 이가 현풍 광씨 집안으로 시집을 온 노금연 님이었다고 하니, 낙서에서 말하는 16세의 인물은 노금연 님일 가능성이 있다. 현 소장자가 제시한 가계 정보에 따르면 노금연 님은 1890년을 전후하여 출생하였고, 창녕에서 고�령으로 시집을 왔다고 한다. 노금연 님의 생년을 근거로 보면 을사년은 1905년이고, 1905년에는 노금연 님이 16세 전후의 나이이므로, 노봉애 소저가 노금연 님께 이 책을 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⁷⁾ 한편 책장이 총 37장이라고 했으므로 전체 74면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본문이 67면으로 되어 있고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책 면 중간 부분에서 필사가 중단되었으므로, 본래는 부족한 면수에 해당하는 7면 내외 분량의 서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봉선전>은 늦어도 1905년 이전에 창작되었으며, 최소 두 편의 이본이 존재하는 작품이다. 충남대본과 고흥본 <유봉선전>은 선행연구에서 말한 것과 달리 <기연회봉록>과는 다른 별도의 작품으로, 현재는 낙장본만 발굴된 상태이다. 고흥본은 15세를 전후하는 여성 독자들도 관심을 기울였던 소설로서, 소장자의 친정과

7) 현 소장자는 할머니님인 노금연 님의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나 노봉애 소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장연 노씨 파보에 따르면 노금연 님의 부친은 노대홍 님으로, 1879년에 출생한 첫째 아들 노상은과 이후 세 딸을 두었다. 현 소장자는 노금연 님이 노대홍 님의 딸 중 첫째라고 했는데, 파보에 첫째 딸이 현풍 광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고 되어 있다.

8) 누락된 분량을 서두 7면 정도로 본 까닭은 “책장이 서런일곱장이리”(고령)이라고 적은 면을 포함하여 <유봉선전>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은 두 면은 책 뒷 표지 양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가가 위치한 지역을 고려할 때 20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적어도 고령, 창녕 등 경남, 경북 인접 지역에서 읽혔다고 할 수 있다.⁹⁾

2) 작품의 경계

두 이본을 토대로 하여 작품 경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본 중 고령본이 시간상 더 앞선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령본을 기준으로 하여 작품의 경계를 정리한다. 두 책 모두에 있는 내용은 각 단락의 끝에 ‘고령’, ‘충남대’로 표기하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밝힌다.

① 유 승상 부부가 자녀가 없어 걱정하던 중 선관의 점지로 딸을 낳으니 이름을 봉선, 자를 진동이라고 한다.(고령)

② 유봉선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는데, 7세 무렵이 되자 시절이 태평한 데도 육도삼략을 배우려 한다. 이에 유 승상이 그 까닭을 물으니 유봉선은 태평한 시절이 장구한 것이 아니며, 황제 “무히무덕”하나 병법서를 익히고 싶다고 하며 육도삼략, 손오병서 등을 읽는다.(고령)

③ 유 승상의 생일에 오랜 벗 김 승상이 찾아오고, 두 사람이 딸 유봉선과 아들 김준의 혼인을 약속 한다.(고령, 충남대)

④ (60여 세가 된, 고령) 유 승상이 득병하여 별세하고, 그의 부인도 일시에 기세 한다.(고령, 충남대)

⑤ 황성에 사는 정 각로(閣老)가 아들 정숙의 배필로 유봉선을 염두에 두고, 매파를 시켜 유봉선의 의중을 탐지하려 했으나 실패 한다.(고령, 충남대)

9) 노금연 님은 〈유봉선전〉 외에도 〈진대방전〉을 비롯하여 40종 내외의 한글 소설을 소장하셨다고 한다. 현 소장자는 할머니가 시집을 때 이들 소설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진술했다. 창녕에 사는 소저가 쓴 책을 고령으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되므로, 창녕과 고령 모두에서 이 작품이 향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녕과 고령은 작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으로, 당시 통혼권이었다고 한다.

⑥ 유봉선이 삼 년 상을 마친 후 정 각로가 다시 매파에게 증매를 요청하니, 매파가 유봉선의 외 오촌 아저비인 장안 한량 강순철에게 증매의 소임을 맡기라고 한다. 이에 정 각로가 강순철에게 후일을 약속하며 일을 맡긴다. 강순철이 유봉선을 찾아가 정 각로의 아들과 혼인할 것을 제안하지만 유봉선은 이미 김 승상의 아들 김준과 약혼했음을 이유로 들어 정 각로 집안의 청혼을 거절하고, 비례를 권하는 강순철에게 화를 낸다.(고령, 충남대)

⑦ 청혼을 거절당하여 화가 난 정 각로가 황제의 생일잔치에 불참한 김 승상을 불충한 자라고 모함하니 황제가 그 말에 속아 김 승상을 해창도로 유배 보낸다.(고령, 충남대)

⑧ 아들 김준과 함께 유배 길에 오른 김 승상이 배를 타고 가던 중 슬퍼하며 갑자기 바다에 몸을 던지고 아들 김준도 아버지를 따른다. 이때 옥황상제가 서해 용왕에게 명하여 김 승상 부자를 구하고, 이후 김 승상 부자는 서해 용왕국에서 지내며 때를 기다린다.(고령, 충남대)

⑨ 김 승상을 제거한 정 각로가 다시 강순철을 시켜 혼서지를 유봉선의 사물함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혼인을 압박하니(충남대), 유봉선이 혼인 압박에 이기지 못해 시비 매월을 단장시켜 자기 대신 혼인하게 하고 자신은 시비 월계와 함께 남장을 한 채 집을 떠난다.(고령, 충남대)

⑩ 혼례를 치른 후, 유봉선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정 각로가 분노하여 매월을 죽이려 하나 주변에서 만류한다. 매월은 본가로 돌아와 유봉선을 기다린다.(고령, 충남대)

⑪ 호주 북촌 계항산(계량산, 충남대)에 도달한 유봉선이 갈 곳을 몰라 고민하는데, 꿈에 아버지 유 승상이 나타나 연경사 수월암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수월암에 도달한 유봉선과 월계는 동별당에 머물게 되고, 유봉선은 노승으로부터 육도삼략, 팔십둔갑 등을 배운다.(고령, 충남대)

⑫ 한편 서해 용왕국의 김준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 한다.(고령, 충남대) 유봉선과 성혼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슬픔을 토로하던 김준이 꿈에서

한 여인을 만나 잠깐의 위로를 얻는다.(충남대)

⑬ 성화 19년 정해 4월 4일(정화 19년 춘삼월, 충남대)에 황제가 과거를 시행한다. 수월암에 머물던 유봉선이 고향 부주에 들러 옛 집을 지키고 있던 매월과 재회한 후 상경하여 춘당대 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한림 학사 직을 받는다. 황제가 전 승상 유철의 아들 유봉선이 급제한 것을 기뻐하니 간신 정 각로, 강문철 등이 봉선이 여성임을 고하지만 황제가 믿지 않고 이들을 나무란 후 유봉선을 이부시랑 겸 통열후(충렬후, 충남대)에 봉한다.(고령, 충남대)

⑭ 과거에 급제한 유봉선이 연경사 수월암에 들러 노승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고령, 충남대)

⑮ 이때 각로 벼슬하는 강문철(광논철, 고령)이 자신을 포함한 8형제, 축국 왕 맹길대 등과 동심하여 찬역(篡逆) 한다.(고령, 충남대)

⑯ 모반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지니 황제는 “원나라 백여 년(사백 년, 충남대) 사직을” 자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한탄하고, 유봉선은 출정을 자원 한다.(고령, 충남대)

⑰ 강문철이 자칭 천평성황제(혹은 평송황제)라 하며 원 황제 덕이 없고 운수 다했기에 백성들의 원망이 들끓으니 이를 평정하기 위해 침범한다는 격서를 보낸 후 쳐들어오니, 유봉선이 연경사 수월암 노승으로부터 칼, 갑옷, 말 등을 얻고 술법을 배워 출정 한다.(고령, 충남대)

⑱ 유봉선이 대도독이 되어 강문철 일당과 축국 병사들을 맞아 싸워 맹필무 등 축국 태자 3인을 사로잡지만 놓아주니, 축국 태자들이 아버지의 벗인 위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국으로 간다.(고령, 충남대)¹⁰⁾

⑲ 위 왕이 축 태자들의 말을 듣고는 분기충천하여 이휘를 대장군 삼아 출정 한다.(충남대)

10) 고령본은 유봉선이 강문철 형제, 축국 병사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에서 필사가 중단되었다.

⑳ 한편 강문철과 축국 태자들을 제압한 유봉선은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이고 김 승상의 아들 김준과 약혼하였음을 밝히며 황제를 속인 벌로 죽여달라고 한다. 황제가 대경실색 하지만 곧 유봉선을 칭찬하며 선봉에 세워 돌아간 후 원수를 곁에 두고 국사를 의논 한다.(충남대)

㉑ 유봉선이 김 승상 부자의 원혼을 위로하며 운주 압록강에서 제를 올린다.(충남대)

㉒ 이후 위 왕이 도덕 선생이라고 하는 도사를 거느리고 침범하니 유봉선이 다시 자원 출정하여 맹렬히 싸우지만, 도덕 선생이 보낸 신귀신장에 싸여 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다.(충남대)

㉓ 이때 유봉선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된 서해 용왕이 김준에게 용왕국에서 익힌 재주를 사용하여 유봉선을 구하라고 말하며 칼과 책, 말 등을 내어주니, 김준은 선봉, 김 승상은 후진으로 출정한다. 김준이 유봉선을 구한 후 축국 태자, 도덕 선생, 위국 장수 이흠 등을 둔갑술 등으로 제압한 후 각각을 벌 한다.(충남대)

㉔ 후진으로 돌아온 김준이 전후사연을 아버지 김 승상에게 고하니 김 승상이 유봉선과 재회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충남대)

㉕ 유봉선은 승전 상황을 황제에게 글로 전하고 김 승상은 해창도로 유배 가다가 물에 뛰어들 후 용왕국에 가게 된 그간의 상황을 황제에게 글로 전하며 죽기를 청하지만 황제가 오히려 기뻐하며 김 승상은 축왕, 김준은 위왕, 유봉선은 충렬왕비, 승상의 부인 강씨는 진숙왕비로 봉하려 한다.(충남대)

㉖ 남편과 아들 김준이 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김 승상의 부인 강씨는 김준이 보낸 서찰을 통해 그간의 상황을 알게 되고, 때마침 황제로부터 진숙왕비 직첩도 받게 된다.(충남대)

㉗ 황성으로 돌아온 유봉선 일행이 봉비당에 이르니 황제가 마중 나와 각각에게 벼슬을 내린다. 김 승상이 봉작을 사양하며 죽기를 청하나, 황제

가 김 승상 부자, 유봉선 등의 공을 거듭 칭찬하고 유봉선을 선봉으로, 김 승상을 선봉대장으로 삼아 환궁 한다.¹¹⁾(충남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유봉선전>은 유봉선과 김준이 간신의 모해로 인해 이별한 후 재회하기까지 겪는 각종 고난과, 군담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영웅소설의 핵심을 결연담과 군담이라고 할 때,¹²⁾ 이 작품은 영웅소설의 핵심 요소를 갖추었고, 여장군의 형상도 묘사하였다.

3. 〈유봉선전〉 이본의 대비

<유봉선전>은 비록 낙장본지만 이본이 존재하므로 습작을 시도하던 개인이 작품을 짓다가 중단한 ‘유일본’ 습작 소설은 아니며, 소수일지라도 이 작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유봉선전> 이본 대비를 통해 작품의 특징과 향유자의 성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자작 초고본 여부와 서사 전개상의 특징

두 책의 서사 전개상 특징을 말하기에 앞서 두 책 모두를 초고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보는 까닭을 필사 상태에 근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본의 경우 문맥에 맞지 않게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쓰고 수정한 부분들이 있다.

11) 충남대본은 유봉선과 김 승상을 선봉, 선봉대장으로 삼는다는 문장의 일부분만 필사된 상태에서 마지막 지면이 끝났다.

12)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21쪽.

일례로 정 각로가 부모상을 치르는 유봉선에게 혼인을 제안하기 위해 매파를 보내 탐지하는 장면을 보면, “잇썩 소지 시비사러 문 왈 **어인 사람 이관디 통귀업시 드러난다** 미과 뮤류이 도라간나라 간나라 미과 강노다려 강노다려 문 왈 **어진 슴이관디 통귀업시 드러오난다** 왈 그 처즈을 보온 니 덕흥니 외모이 낫타나고”(고령, 6-7면)¹³⁾라는 문장이 있다. “도라 간나라 간나라”와 같이 ‘간나라’를 두 번 쓴 후 하나를 지운 표시가 있고 또 두 번째 “강노다려” 이하로는 앞서 유봉선이 시비에게 한 말을 반복하여 썼다가 지웠다. “문 왈”과 “왈”이라는 유사한 표현 때문에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고령본 필사기 등에 쓰여 있는 자작서(자작필서)라는 표현은 특정 작품의 초고 작성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¹⁴⁾ 두 이본을 대비해보면 세부적인 묘사 혹은 사건 전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의 구절, 문장 차이 등이 존재하는데, 고령본 필사자를 비롯한 당시의 향유자들은 이러한 것들도 넓은 의미의 자작행위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충남대본 역시 초고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볼 만한 지점이 있다. 예를

13) 이하, 본문을 인용할 때 필사자가 지운 부분은 가운데 줄을 그어 표시하고, 글자를 첨가한 경우 ()안에 넣어 표시한다.

14) 20세기 초에 통용되던 자작 개념의 경우 독창적인 창작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신소설 모방 텍스트의 특징을 살핀 선행연구를 보면, 당시의 자작 혹은 자작 개념은 오늘날의 것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때그때 저본을 참고하면서 때로는 저본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때로는 부분적인 첨삭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저술 행위를 이어나간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중략)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텍스트 전체를 다시 옮겨 출판하면서 저자의 이름만 바꾼 경우도 수두룩하며, 저본의 내용에 결말 등 극히 일부분을 가필하여 출판한 경우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물의 이름이나 지명 정도를 바꾸는 수준으로부터 문장의 일부를 첨삭하는 수준의 텍스트, 일부를 덜어내거나 전체적으로 축약하여 내용 훼손 없이 분량을 줄인 텍스트들이 허다하다.”(최성윤, 「초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 - 박철훈, 『월미도』에 나타난 혼성모방의 성격」,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108~109쪽.)

들어 “부인과 소제를 청하여 손을 갈나 갈나 잡고 늦기시며 왈”(3면)이라는 문장의 경우 “갈나”를 두 번 반복한 후 한 개를 지웠다. 또 “김노구를 베퍼 조정 기강을 세우옵(고) 후일 신히로 쟁계하옵쇼셔 한(디) 또 조정이 그 권을 두려 하여 일시의 복지주왈”(충남대, 12면)과 같은 문장을 보면, 내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고치기 위해 ‘고’, ‘디’와 같은 어미를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와 같은 실수와 수정의 반복은 창작 단계보다 필사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두 책의 서사 전개 양상은 어떠할까. 작품 경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유봉선전〉 고령본과 충남대본의 서사 전개 순서는 대체로 동일하다. 두 책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을 추려보면 ‘유 승상과 김 승상 자녀의 약혼 - 유 승상 부부의 득병, 기세 - 정 각로의 유봉선에 대한 청혼 - 김 승상의 황제 생일연 불참과 정 각로의 모함 - 유배지로 가던 김 승상 부자의 수증 투신 - 서해 용왕의 김 승상 부자 구출 - 정 각로의 혼인 강요와 시비 매월의 대리 혼인 - 유봉선의 남장과 도주 - 변장한 매월의 발각과 복귀 - 부친이 등장하는 예지몽을 꾸 유봉선의 연경사 수월암 행 - 유봉선의 병법과 도술 연마 - 유봉선의 과거 급제 - 강문철과 축국 연합의 반란 - 유봉선의 출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건 전개 순서가 동일하고 주요 사건들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 가운데 충남대본에 하나의 장면이 추가된 게 눈에 띄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설 이적의 김준니 붓친을 모시고 용국의서 세월을 보닌니 일신은 편하나 정심오 이실 썩의 유소제 하 연약이 금석갓하여 정혼흙물 지달이리더니 뜻박기 이지경을 당하여 춘흥을 못이키어 혼즈 안자 들환 왈 전심의 묘습 죄로
○부모 일즉 흐죽하고 원근친적 전니업서 ○혈혈단신 되어노고 ○천지광덕

흐되 인탁이 가련하다 ○무정시월 유슈된니 ○디장부의 공명스가 ○속절업시
 허스르다 ○쳐랑흔 이(니)몸은 몸은 어디가 짝을 붙고 ○크다 큰 빈 방 안의
 이(니)신세 싱각하니 ○서름이 첩첩하다 ○일전의 밋진 연약 ○언지나 푸러불
 고 ○옥창을 반기해야 ○흔심이 절절노난다 ○이(니)마음 알알전의 ○낭즌들 엇
 더하라 ○청천이 유의커던 ○이(니)마음 가져다가 ○낭즈기 전하여슈 ○시월을
 보(니)던니 이(러)흔 님 한을 천신인들 몰을손야 ○**각설** 이적의 유소지 연경사
 슈월암의 이셔(고령, 32-33면)¹⁵⁾

(나) 각설 이적의 김준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의 이셔 세월을 보(니)던이 일신은
 평하나 전칭의 이실 저의 유 소제와 연약이 금석갓디여 성혼을 기달여던이 뜻
 밧게 이 지경을 당하여신이 춘흥(을) 몬 이기여 혼자 안자 돌탄으로 가로디 무
 정세월리 유슈되고 디장부 공명사가 속절업시 허사르다 원□의 위난 벽간을
으지하여 사람을 조롱하며 나지면 싸을지여 뒷동산 짓쳐달나 운슈 간의 논
이다가 일(낙)세산 월동영에 집을 차자 드르와셔 나리로 서로 덩고 구구이
노난 양은 그 님라 다 알손야 쳐랑흔 이(니) 몸은 어디 가 짝을 붙고 상사불견
야속하다 소식 좃차 정막흔이 일전의 밋진 연약 언지나 푸러불고 쏘의나 보러
던이 쏘도 쏘흔 허사르다 촉불만 도도케고 격막히 안자신이 혼숨이 절노 난
 다 이(니) 마음 이럴 적의 낭잔덜 무심하라 청천이 아올진디 이(니) 마음 기려다가
 낭자의게 전호쇼셔 (추)푼낙업 찬바람의 벽셔리 허터질 제 님로하여 기덜손
 야 어화 가련히미여 빙연이 유슈로다 **이렇게 갖탄홀 제 몸이 곤하여 갑간**
췌우던이 비몽간의 혼 소낭자 드러와 져티 안거날(충남대, 38-40면)

위 인용문 (가)와 (나)는 용왕에 의해 구출된 김준이 아버지와 함께 용궁
 에 머무는 상황에서 유 소저를 그리워하며 신세한탄 하는 내용이다. 고령
 본 (가)에서는 김준의 한탄에 이어 ‘각설’이라고 한 후 연경사 수월암에
 머물고 있는 유 소저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된다. 반면 충남대본 (나)에서는
 김준이 한탄하며 슬퍼하다가 잠깐 졸게 되고, 꿈에서 한 소 낭자를 만나는

15) ○ 표시는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일장춘몽에 관한 내용이 한 면 정도 서술된 후 연경사 수월암에 머무는 유 소저에 관한 이야기로 장면전환 된다. 충남대본에 있는 내용이 고령본에는 없으므로, 일장춘몽에 관한 내용은 충남대본이 추가한 것일 수도 있고, 고령본이 삭제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와 같은 차이는 서사 전개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남아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두 책의 서사 전개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책의 필사가 종료된 지점을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앞서 서지 정보를 소개할 때 해당 내용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본은 강문철과 축국 일당에 맞서 싸우던 유봉선이 칠성검으로 적장의 철퇴를 부러뜨리는 활약을 하다가 갑자기 팔문금사진에 휩싸여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에서 필사가 중단되었다. 책장이 총 서른일곱 장이라는 필사기가 고령본에 있다고 앞서 말하였는데, 서른일곱 장으로 책을 묶어 필사를 하다 보니 책면이 모자랄 듯 하여 해당 장면에서 필사를 중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팔문금사진니 변혁야 원양진니 되어신니 동서남북을”(고령, 67쪽)에서 문장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필사를 중단하였고, 책면 끝까지 필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충남대본 역시 황제가 전장에서 유봉선을 비롯한 장수들의 공을 치하하며 유봉선을 선봉으로 삼아 환궁하려는 장면에서 필사가 종료되었고 문장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충남대본의 경우 책 끝 면 끝줄까지 필사가 되어 있으므로 필사를 의도적으로 중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고령본은 총 67면 중 26면 정도가 군담이고, 충남대본은 총 139면 중 약 90면이 군담이므로, 비중으로 따졌을 때 군담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필사 종료 지점을 대비해볼 때, 15세 소저가 자작자(필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고령본의 경우 군담에 대한 필사자의 취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2) 세부적인 표현과 어휘 표기 등의 특징

앞 절에서는 두 책이 서사 층위에서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이제 세부적인 표현이나 문장, 어휘 등의 이본 간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앞의 1)절에서 제시한 인용문 (가)와 (나)의 밑줄은 상대 본에 없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고령본은 ‘가련하다’, ‘서러움이 첩첩하다’, ‘한이 있다’ 등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반면, 충남대본은 ‘가련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으나 자연의 변화에 빚대어 인물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실전달에 가까운 발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본이 충남대본에 비해 인물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는 면모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가)의 “전칭의 무슴 죄로 ○부모 일즉 흥즉흥고 원근친척 전니업서 ○혈혈단신 되어논고 ○천지광디 흐되 의탁이 가련흐다”라는 문장은 고령본에만 있다. 해당 문장이 김준의 신세에 대한 한탄인가 싶지만, 작중 김준은 아버지와 함께 구출되어 서해 용왕국에 머무는 상황이므로 ‘부모 하직’이나 ‘혈혈단신’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할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혼자 남겨진 유봉선에 대한 안타까움의 토로로 보아야 할 텐데, 유봉선이 부모를 잃고 혼인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막연하게 전생의 죄 탓이라고 하거나, 유봉선에게 외오촌 등이 있음에도 원근친척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유봉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상투적이고 과장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 승승이 준으 손홀 잡고 올면 준아 준아 집으로 도라가서 못친을 위로하
 라 나는 익적이 이 지경을 당흔니 스라 무엇하리요 흥면 준을 세 번 부르며
 디히슈 썩진니 쏘흔 준니 망극하여 흥늘을 우러러 통곡하면 물의 싸진니 청천
 빅일이 유소소라(고령, 14~15면.)

(라) 승상이 준의 손을 잡고 통곡하시며 왈 준아 준아 세 번 부르며 일장통곡의 디히슈의 싸진니 또 준이 흐날을 우러 탄식 후의 부친을 사라 흠기 물의서 싸진이 엇지 혼심치 아니흐리오(충남대, 15-16면)

물에 뛰어들기 직전 김 승상이 아들 김준에게 전한 말에도 차이가 있는데, 위의 인용문 (다)와 (라)를 대비하면 알 수 있다. 고령본의 경우 애매하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살아 무엇 하겠냐는 말을 통해 인물이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고난에 처한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고 공감을 표하는 데 고령본이 더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두 책을 대비해보면 작품 전반에 걸쳐서는 충남대본이 세부적인 묘사나 설명을 자세히 하며 정보를 더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인용문 (가)와 (나)에서도 충남대본이 자연물에 빗대어 인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함을 확인했는데,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정 각노가 유봉선에 대한 정보를 듣고 유봉선을 며느리 삼으려는 부분을 분절한 후 대비해보면, 같은 정황을 서술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고령본(6면)	충남대본(4~5면)
맞참 유승상 집의 <u>쥬슈 잇단 말을 듯고</u>	맞참 유승상의 여식이 <u>만고결식이란 말을 듯고</u>
탈복 후의 <u>성에홀리라</u> <u>흐고</u>	<u>그 처자를 즈심이 보고</u> 탈복후의 <u>성여홀리라</u> <u>흐고</u>
미팔을 보너여 <u>그 소제를 톱지하라</u> <u>흐니</u>	즉시 미떡을 보너여 <u>소제를 자심이 보고</u> <u>오라</u> <u>흐니</u>
미파 <u>응답</u> <u>흐고</u> <u>유승상</u> <u>딕의</u> <u>간니</u>	미떡 <u>청영</u> <u>흐고</u> <u>즉시</u> <u>승상부</u> 의 <u>가니</u>
쇼제 <u>소복</u> <u>흐고</u> <u>안진</u> <u>거동</u> 을 <u>본이</u>	쇼제 <u>소복</u> <u>얼</u> <u>입고</u> <u>안진</u> <u>거동</u> 을 <u>보니</u>
녹발홍안의 <u>빅티</u> <u>괴베</u> <u>흐에</u> <u>진지</u> <u>요쥬슈</u> <u>얼</u> <u>네라</u>	녹발홍안의 <u>빅티</u> <u>구비</u> <u>흐여</u> <u>짐지</u> <u>요쥬슈</u> <u>여요</u> <u>만고결식</u> <u>이라</u>

고령본에서는 “쥬슈 잇단 말을 듯고”라고 하여 소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을 전달했다면, 충남대본은 “만고절식이란 말을 두고”라고 하여 정 각노가 유봉선을 며느리로 탐내게 된 이유를 덧붙였다. 고령본에서는 탈복 후 성례하겠다는 마음은 정한 채 매파를 보낸 것처럼 서술하였다면, 충남대본에서는 처자를 자세히 살피겠다는 조건을 밝힘으로써, 정 각노가 더 면밀하게 신부감을 살피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또 고령본에서는 유봉선을 요조숙녀로 표현했는데, 충남대본에서는 요조숙녀에 만고절색이라고 평했다. 전반적으로 충남대본이 정보를 더 자세히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내용이 덧붙진 않았지만 유사한 말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있다. ‘탐지하는’ 것과 ‘자세히 보는’ 것, ‘응답’하는 것과 ‘칭영’하는 것, ‘소복하는’ 것과 ‘소복을 입는’ 것, “빅티 괴배”와 “빅티 구비”, “요조숙여”와 “요조숙여” 같은 부분이 그러하다.

그리고 충남대본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전체적으로 다듬은 흔적들이 있다. 앞서 제시한 인용문 (나)에서도 ‘일(낙)세산’, ‘(추)푼낙업’과 같이 누락된 글자를 추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오류를 바로잡은 부분이 고령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호성티 디경혀여 말머리를 (둘) 너 본진으로 도라가고져 흥던이”(충남대, 110면), “적진은 슈이나와 황복하라 흥면 무슈이 질옥하이 적진의 쏘흔 장 나와 꾸지져 월”(충남대, 110면)과 같은 오류도 충남대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머리를 둘너’라고 써야 하는데 ‘둘’을 빼 채 ‘말머리를 너’라고 썼다가 ‘둘’을 넣었고, ‘장수’라고 써야 하는데, ‘장’이라고만 쓴 채 보완하지 않은 것이다. “철리 강노게 엇자오 디 이제 옥 예장을 소제 옥즙의 너어사온이”(충남대, 19면)처럼, 고령본과 유사하게 단어를 혼동하여 썼다 지운 흔적 또한 볼 수 있다. ‘옥’이라는 글자가 그러한데, ‘이제 옥’과 ‘소제 옥즙’은 ‘제’와 ‘옥’이 이어지는 동일한 상황으로, 필사 과정에서 혼동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충남대본의 이러한 특징을 초고본을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까닭은 단어를 구성하는 한 글자를 빠뜨렸다가 보완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둔 것,

혹은 유사한 글자와 글자의 연결을 혼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의 경우 창작을 할 때보다는 대본을 두고 옮겨 쓸 때 발생하기 쉬운 것들이 많은 앞서도 지적하였다.

3)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사용의 특징

다음으로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대비해보도록 하겠다. 인물이나 장소가 다수 등장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본 대비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제일이난 광문철이요 제이난 소쥬즈스 강철리요 제삼의난 익쥬즈사 광명철이요 제스의난 양쥬즈스 강인철리요 제오의난 용쥬즈스 강호철이요 제육의는 히쥬즈스 강성처리요 제칠의난 공쥬 강준철이요 제팔의난 강또철리요라. (고령, 42면)

(바) 각설 예적의 강문철리 □□송황제라 호고 진세를 벳폴시 황석철노 디사 마디원슈을 보시고 황석갑으로 부원슈을 봉호시고 소쥬즈스 강유철노 섬봉장을 삼으시고 용쥬자사 강한철로 군양도총독을 삼고 히쥬즈스 강석철로 지장 삼빅 병과 군사 에십만을 쥬워 평송황제를 응위호기 호고 공쥬자사 강준철노 정병 삼만을 쥬어 후군장 점응하기 호고 □쥬자사 강또철노 정병 사십만을 쥬어 (고령, 50~51면)

(사) 제일의난 강무철리요 제이의난 요쥬자사 유철리요 제삼은 익쥬자사 명철이요 제사난 양쥬자사 인철리요 제오난 용쥬자사 호철리요 제육은 히쥬즈스 석철리요 제칠은 공쥬자사 준철리요 제팔은 쑤철리라.(충남대, 53~54면)

(아) 각설 이적의 강문철리 갖칭 천평성황제라 호고 진세를 벳폴시 황석철노 디사마디원슈로 봉호고 황석갑으로 부원슈로 삼고 유쥬자스 유철노 선봉을 삼

고 **명철노 중군장을 삼고 인철노 휴군장을 삼고** 혼철노 군양돛축장을 삼고 석철 제장 삼빅 벽과 군사 십만을 주워 남송황제를 용위하고 준철노 정병 삼십만을 주어 후군을 접응하게 하고 **싯철노** 정병 이십만을 주어(충남대, 62~63면)

인용문 (바), (아)의 경우 “명철노 중군장을 삼고 인철노 휴군장을 삼고”라는 내용¹⁶⁾을 제외하면 등장인물의 이름과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유사하게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관직과 인명에 몇 부분 차이가 있고 병사의 수가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인명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 가운데 ‘쑤철’과 ‘싯철’의 경우는 글자 모양이 유사하여 혼동할 여지가 있는데, 고령본 (마), (바)에서는 쑤철로 통일이 되었고, 충남대본 (사), (아)에서는 싯철로 통일이 되어 있어 어느 것을 잘못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강씨 형제 가운데 둘째로 소개되는 강유철 부분에는 오류가 있다. 고령본 (바)에서는 소주자사로, 충남대본 (아)에서는 유주자사로 강유철을 소개했다. 강유철이 등장하는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고령본 (마)에서는 둘째인 소수자사를 소개할 때 강철이라고 하여 한 글자를 누락했는데, (마)와 (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대비해보면 강철은 강유철의 오류이다. 그리고 충남대본 (사)에서는 요주자사 유철이라고 했는데, (사)와 (아)를 대비해볼 때 요주와 유주를 혼동하긴 했지만, 워낙에 명확하게 요주와 유주로 적어두었으므로 현 상태 만으로는 요주나 유주가 소주를 잘못 읽어 옮긴 것이라고 판단하는 어렵다. 또 (마), (바), (사), (아)를 보면 만형에 해당하는 인물을 각각 광문철, 강문철, 강무철, 강문철이라고 했는데, (바)와 (아)가 강문철로 동일하고, 이들 형제의 성은 ‘강’이므로, 강문철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16) 충남대본에만 명철과 인철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앞서 말하였듯이 충남대본이 세부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하는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적의 유봉선니 연경사 수월암의 득달흔니 노승이 나와 마자 사중의 드러가 에필좌정 후의 봉선니 엿자오되 역적 강문철히 반하여 저으 팔 형제 동 심모반하고 초국을 달니여 원제를 꺾박고저 호오면 괴시 엄엄호기로 선상의 집 쑤 게코을 듯고저 호야 왓사온니 가르치소서 노싱 왈 나도 그런줄 짐작호엿소 호고 적진 파할 명감록을 너여눅코 이익지 보다가 디경왈 초국 명장 황석황석 같은 제지와 술법을 공도산 도사으기 비와시며 귀신도 충양치 못홀지라 그러나 갑주와 보금이 호 비상한니 빅금투구와 수운갑은 천하의 드문 보비라 시석 이 범치 못호며 그러나 근심되괴난 거시 전세를 받키여 일치말고 조심호라 하고 또한 칼과 갑오실 너여쥬며 왈 이 칼은 칠성금이요 갑주난 용수갑이라(고령, 53~54면)

(차) 이적의 봉선이 여러날 만의 연경사 수월암의 득달흔이 노승이 나와 마자 사중의 드러가 에필좌정 후의 봉선이 엿자오되 역적 강문철리 반호여 제 팔 형제 모반호옵고 초국을 달니여 원제를 꺾박호오미 엄엄호기로 선상의 집쑤 게 고을 듯고저 호와 왓사오이 밥비 가로치소서 호디 노승 왈 나도 디강 짐작호노 라 호고 적진 파할 명감록을 너눅코 이우히 보다가 디경 왈 적장 황석철 황석 갑의 술법은 공도산 도사으게 비와신이 귀신도 칭양치 못홀지라 그러나 갑주 와 보금은 호 비상호지라 빅금투구와 수운갑은 천호보비라 지석이 임으로 범치 못호며 그 지혜 용뎡을 너 능히 당호리요마난 근심되난 거신 전세를 기여 일치 말나 호고 안으로 드러가던이 칼과 갑오실 쥬며 왈 이 칼은 칠정금이요 이 갑오 신 용수갑이라(충남대, 65~66면)

위 인용문은 강문철 일당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한 유봉선이 연경사 수월암의 스승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다. 연경사 수월암이라는 지명, 명감록이라는 책명, 공도산 도사라는 인명, 수운갑, 용수갑 등 전쟁 도구 명칭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칠성검과 칠정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의미를 특정하는 정보 없이 사용한 칠정검과 칠성검이라는 명칭은 충분히 대체하여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고령본에서 ‘황석황석갑’이라고

쓴 부분은 본래 충남대본과 같이 ‘황석철 황석갑’이었던 것을 잘못 보고 썼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상, 살펴본 특징들을 정리하면 <유봉선전>의 경우 고령본은 인물의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고, 충남대본은 상대적으로 풍성한 정보, 정확한 정보 제공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3장의 분석과 2장에서 언급한 고령본의 마지막 문장의 혼동 등을 고려할 때, 고령본은 충남대본 혹은 충남대본과 유사하게 지면이 구성된 책을 대본으로 삼아 필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부분적으로 표현과 어휘를 수정했고 또 곳곳에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은 필사본이라 하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충남대본의 오류나 수정 지점들은 고령본과 충남대본 이외에, 충남대본 필사의 대본이 되었을 또 하나의 <유봉선전> 이본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이대봉전>의 자장과 <유봉선전>

앞서 <유봉선전>이 <기연회봉록>의 이본으로 잘못 거론된 예를 언급했는데, 이는 <유봉선전> 본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연회봉록> 등장 인물의 이름과 <유봉선전>이라는 제목이 유사한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연회봉록>은 남 주인공의 이름이 유봉상이고, <유봉선전>은 여 주인공의 이름이 유봉선일뿐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유봉선전>의 내용은 어떤 작품들과 유사할까. 최근 새로 발굴, 소개된 고전 소설들은 “고전소설의 독서 경험을 활용하여 흥미로운 화소들을 수용하는 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여 녹여내지는 못한(...중략...) 조선 후기 국문소설 독자의 시작(試作) 혹은 습작(習作)”¹⁷⁾ 수준의 것으로, 19세

기 말-20세기 초에 창작된 것들이 다수¹⁸⁾라고 한다. 〈유봉선전〉또한 고전소설의 독서 경험을 살려 창작한 소설이라면 어떤 작품에 대한 독서 경험을 〈유봉선전〉에 담았을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유봉선과 유사하게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봉선전〉을 〈이대봉전〉의 자장 안에 있는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¹⁹⁾ 〈이대봉전〉은 필사본 〈이봉빈전〉은 물론이고, “구활자본 시기에 변개, 개작된 작품인 〈봉황대〉, 〈양주봉전〉, 〈이봉빈전〉 등의 모본”²⁰⁾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다.²¹⁾ 〈이대봉전〉 계열 작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이대봉전〉과 〈이대봉전〉에서 파생된 〈이봉빈전〉 계열의 영향을 함께 받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봉빈전〉의 경우 “전반부는 〈이대봉전〉을 모방하고, 중반 이후부터는 많은 변개를 통해 독자적 성격을 이룬 작품”²²⁾으로 알려져 있다. 세 작품의 내용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17) 엄태식, 「〈김일선전〉 연구」,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133쪽.

18) 여러 소설을 혼합한 습작의 예로 〈김일선전〉이나 〈유장옥전〉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엄태식(2019), 위의 논문, 113~159쪽; 장경남, 「새 자료 〈유장옥전〉 연구」, 『어문연구』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207~230쪽이 있다.

19) 이 장에서는 작품의 뼈대가 되는 서사를 기준으로 하여 〈유봉선전〉 창작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작품들을 찾고 서사를 대비해보려 한다. 인명, 지명과 같은 요소나 예지몽을 통한 피신과 같이 다수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러한 층위의 유사성까지 논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유봉선이 혼인 강요를 피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선 후 꿈에 등장한 부친의 지시에 따라 수월암으로 가는데, 여성 주인공이 수월암이라는 곳에 머무는 설정은 〈사씨남정기〉에서 사용되어 이후 작품들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유사점에만 근거하여 〈유봉선전〉이 〈사씨남정기〉의 자장 안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20) 김정녀, 「〈이대봉전〉의 이본 고찰을 통한 소설사적 위상 재고」,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7쪽.

21) 경북지역 필사본 고소설의 유통을 살핀 선행 연구에서는 〈이대봉전〉이 경북지역 “선비집안 및 학자집안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향유되었다고 하였다.(김재용,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 243쪽.) 〈유봉선전〉이 향유되었던 경북 지역 독자들도 〈이대봉전〉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확인하기 위해 <이대봉전>, <이봉빈전>, <유봉선전>의 서사 단락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대봉전> ²³⁾	<이봉빈전> ²⁴⁾	<유봉선전>
이부시랑 이익이 시주를 한 후 아들 이대봉을 낳음 장 한림의 부인 소씨가 이익의 부인 양씨와 같은 태몽을 꾸 후 딸 장애황을 낳음	이규가 적강선녀 꿈을 꾸 후 딸 이봉빈을 낳음	유 승상이 선관의 점지로 딸 유봉선을 낳음(고령)
이대봉과 장 한림의 딸 장애황이 정혼함	이봉빈과 운풍의 아들 운기가 정혼함	유봉선과 승상 김녹구의 아들 김준이 정혼함
이익이 간신 왕희의 탄핵소를 제출했다 역으로 유배 감	간신 강희가 이봉빈을 자부로 맞이하려다 거절당하자 운풍 부자를 모함, 정배시킴	
유배 길에 왕희의 사주를 받은 뱃사공이 이익을 물에 던지니, 이대봉도 함께 뛰어듦	유배 길에 강희의 사주를 받은 뱃사공이 운풍 부자를 물에 던짐	
	이봉빈이 운풍 부자 소식을 듣고 신위를 배설	
	운풍의 부인이 슬퍼하다 사망함	
장 한림 부부가 이익 집안의 몰락을 보고 화병으로 죽음	운풍의 몰락에 이규는 화병이 나 죽고, 운풍 처는 자결	유 승상 부부가 우연득병하여 일시 사망함
왕희가 장애황을 아들의 배필로 삼기 위해 애황의 친척 장준을 통해 청혼하지만 실패		황성 사람 정 각로가 아들 정숙의 배필로 유봉선을 탐내어, 매파를 통해 청혼하지만 거절당함
		유봉선이 3상을 마치자 다시 유봉선의 외삼촌 강순철을 시켜 청혼하지만 유봉선이 강력하게 거절함
		분노한 정 각로가 황제의 생일연에 불참한 승상 김녹구를 모함하여 해창도로 유배가게 됨
		김 승상 부자가 함께 유배를

22) 김정녀(2014), 앞의 논문, 34쪽.

		가던 중, 상심한 김승상이 물에 몸을 던지고, 아들 김준도 따라 물에 빠짐
서해 용왕이 물에 빠진 이익과 이대봉을 구하여, 이익은 외딴 섬에, 이대봉은 금화산 백운암에 기거하게 함 이대봉이 금화산 백운암에서 노승으로부터 가르침 받음		옥황상제의 명으로 서해 용왕이 김 승상 부자를 구하여 용궁에서 함께 지내게 됨
왕희가 장애황을 납치하여 혼례를 이루려 하자, 시비 난향을 자신으로 변장하여 시집가게 하고 애황은 남장을 한 채 도망침	강희가 혼사를 강제하려 하자, 시비 설항매를 자신으로 변장하여 시집가게 하고 이봉빈은 남장을 한 채 도망침	정 각로가 혼인을 강제하자 시비 매월을 자신으로 변장하게 한 후 유봉선은 남장을 하고 시비 월계와 함께 도망침
난향의 실체를 알게 된 왕희가 난향을 죽이려 하지만 주변의 만류로 난향을 본가로 돌려보냄		매월의 실체를 알게 된 정 각로가 매월을 죽이려 하나 주변에서 만류하여 본가로 돌려보냄(고령) / 매월의 실체를 알게 된 정 각로가 매월을 수죄하여 내침(충남대)
남북을 한 채 길을 떠난 장애황은 예지몽을 꾸 후 암자에 이르러 공부를 함(방각본)		호주 북촌 계항산에서 방황하던 유봉선이 아버지가 등장하는 예지몽을 꾸고 연경사 수월암으로 가 동별당에 머물며 육도삼략 등의 병법을 연마함
다시 길을 떠난 장애황이 최 어사 집의 과부 호 부인에게 은혜를 입어, 최 어사 댁에 기거하며 과거를 준비함 *이름을 장해운으로 변경	이봉빈이 한 어사 댁에 기거하며 병법과 무예를 익힘	
	물에 빠진 운풍 부자를 청의동자가 구해주고, 운풍과 운기는 외딴 섬 초옥에서 함께 지내게 됨	용왕국(용궁)에 머무는 김준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유봉선을 그리워하는 시를 읊음(고령/충남대) / 유봉선을 그리워하다가 김준이 소 낭자를 만나는 꿈을 꾸게 됨(충남대)
		수월암에 머물던 유봉선 또한 김준을 그리워하며 통곡함(충남대)

	한 어사 부인이 자신의 딸과 이봉빈의 혼약을 추진함	
과거 시행함	과거 시행함	성화 19년 정해년 4월 4일, 과거 시행함(고령) / 정화 19년 춘삼월 과거 시행함(충남대)
장해운이 장미동 옛집을 둘러보고, 시비 난항과 재회함		유봉선이 고향 부주로 돌아가 시비 매월을 만난 후 서울로 감
장해운이 응시, 장원급제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음	이봉빈이 장원급제 함	춘당대 시험에 응시한 유봉선이 장원급제함
왕희가 장화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지만 황제가 듣지 않음	강희가 이규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지만 황제가 듣지 않음	정 각로, 강문철 등이 유봉선이 유승상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라고 말하지만 황제가 믿지 않고, 오히려 정 각로를 꾸짖음
	강희가 유배가게 됨	
	이봉빈이 이부상서가 됨	유봉선이 이부시랑 겸 통렬후 직을 받음
장해운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자 호 부인이 자신의 딸과 혼례를 치르게 하려는데, 황제가 불러 일이 성사되지 않음		
남선우가 증원을 침범함	운남이 반역함	광논철 8형제가 반역지심을 품어 난을 일으킴(고령) / 강문철 8형제로 되어 있음(충남대) 강문철이 촉국 왕 맹길대에 청병하여 황석철, 황석갑 형제가 출정함
		황제가 “원나라 백여 년 사직”의 와해를 한탄함
장해운이 자원 출정함(필사본) 왕희 등이 장해운을 추천하여 장해운이 출정함(방각본)	이봉빈이 대원수로 출정함	유봉선이 자원 출정함
		강문철 등이 송황제(고령)/남송황제(충남대)를 옹위하여 진격함
		유봉선이 수월암에 가서 스승으로부터 칼, 갑옷, 병서, 말(고령)/ 각종

		전쟁도구(충대)를 받아 옴
장해운(장애황)이 남선우를 제압함	이봉빈이 오랑캐와 싸우다 위기에 빠짐	유봉선이 강문철을 비롯한 족국 군사들과 싸움(고령본 필사 종료) / 유봉선이 족국을 상대로 용맹하게 싸움(충남대)
유봉선이 도망치는 남선우를 박멸하기 위해 추격함		신장을 이용한 도술전을 벌인 끝에 맹필무 3형제를 유봉선이 사로잡지만 놓아주니 이들이 위국으로 도움을 청하러 감(충남대)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북흉노가 증원을 침범함		위왕이 축 태자(맹필무 등)의 말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장수 이흠을 대장으로 삼아 출정함(충남대)
		위국과 싸우기 전 유봉선이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전 승상 김녹구의 아들 김준과 혼인한 것을 밝힘 황제가 놀라지만 유봉선을 칭찬하며 선봉에 둠 유봉선이 김준 부자의 원혼을 위로하며 운주 압록강에서 제를 올림(충남대)
이대봉의 모친이 장애황의 시비 난항을 만나 함께 도망쳐 여승이 되어 지냄		
북흉노를 피해 능주로 피신했던 황제가 왕희의 주청으로 항서를 쓰려 함		위왕의 발호를 황제가 두려워함(충남대)
		위왕이 도덕선생이라는 도사를 데리고 와 도술전을 펼치니 유봉선이 신귀신장에 싸여 헤어나지 못함. 유봉선이 안타까워 함(충남대)
백운암에서 수확하던 이대봉이 월각투구, 용린갑, 오주마, 정룡도를 얻어 출정. 이대봉이 황제를 구하고 흉노를 제압함	위기에 빠진 이봉빈이 동해 용왕의 도움으로 오랑캐를 평정함	이때 용궁에 머물던 김준 부자가 용궁에서 배운 도술과 신비한 도구들을 가지고 출정하여 이흠 등을 멸하고, 유봉선을 구함(충남대)
		유봉선을 구한 김준이

		본진으로 돌아와 아버지 김승상에게 전후사를 고함(충남대)
황제의 신임을 얻은 이대봉이 흉노 잔당을 정벌하기 위해 뒤쫓음		
흉노를 쫓던 이대봉이 풍랑 때문에 무인도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재회함		
이대봉 부자가 중원으로 가다가 서해 용왕의 용궁으로 가게 되고, 서해 용왕의 부탁으로 남해용왕국을 정벌함		
장애황이 상소를 올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황제의 허락 하에 이익과 이대봉을 위해 수록제를 올림	이봉빈이 간신 강희 부자를 제물로 삼아 운풍 부자에게 제를 올리고,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힘. 황제로부터 벼슬과 상을 받은 이봉빈이 수록제를 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을 만나 환생약을 얻음	
위령제를 본 여승들(이대봉 모친 등)이 슬피 우는 것이 계기가 되어 장애황과 시어머니 등이 재회하게 됨	이봉빈이 환생약으로, 부모, 시부모를 살린 후 황제에게 표문을 올림	
이대봉은 아버지와 함께 중원으로 향함		
황제에게 장애황(장해운)과 이대봉의 상소가 올라감		
황제가 이대봉 부자에게 벼슬을 내림	황제가 이들에게 큰 벼슬을 내림	김 승상이 황제에게 편지로 그간의 사정을 고하니, 황제가 김 승상, 김준, 유봉선에게 상을 내림(충남대)
장애황이 황제에게 간신 왕희의 처벌을 요구함		
가족들이 재회함		김승상 부인 강씨가 아들의 편지를 받고 기뻐함(충남대)
		김승상과 황제가 만나 환궁하는 장면에서 종료(충남대)

이대봉이 왕희를 처벌함		
황제가 장해운(장애환)과 이대봉이 혼인하도록 함 시비 난항을 이대봉의 첩으로 삼음	황제가 이봉빈과 운기의 혼인을 주선했(이하 낙장)	
이대봉이 초왕이 되어 초국으로 가는 길에 최 여사의 딸 최소저를 부인으로 맞음		
이대봉이 초국에서 대대로 행복하게 지냄		

〈유봉선전〉은 위의 대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대봉전〉, 〈이봉빈전〉의 서사단락을 취사선택하여 이야기의 큰 틀을 세우고 그 사이에 몇몇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건의 순서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

23) 〈이대봉전〉의 서사단락은 필사본, 방각본, 세책본 〈이대봉전〉을 검토한 김경숙의 연구에 수록된 필사본 경계를 토대로 하되 일부 수정하였다.(김경숙, 『이대봉전 이본 고-동양문고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 열상고전연구회, 2007, 94~98쪽.) 〈이대봉전〉의 경우 필사본과 방각본 간 내용에 차이가 있다. 방각본 〈이대봉전〉의 후반부 내용은 현재 남아 있는 〈유봉선전〉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본에 가깝다고 알려진 필사본을 중심으로 서사 단락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필사본 중에서도 김광순본이 선본이라고 하였으나(김정녀(2014), 위의 논문, 12쪽 참조) 김경숙의 연구에서는 필사본 중 나손본을 대상으로 하여 서사 단락을 정리하였다. 비록 나손본이 선본은 아니라고 하나, 서사 단락을 정리하는 데 있어 무리가 될 만큼의 오류는 아니고 또 김광순본의 경우 1919년에 필사되었다고 하므로, 1905년에 필사된 〈유봉선전〉과 비교하려면 그보다 앞서 필사된 자료가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김경숙의 연구 가운데 나손본에 관한 정리를 참고하였다. 김경숙은 동양문고본 〈이대봉전〉이 나손본에 비해 축약되었다고 했고, 동양문고본이 1905년에 필사되었다고 했으므로(김경숙(2007), 위의 논문, 91쪽) 나손본의 필사 시기는 적어도 1905년보다 앞선다.

24) 〈이봉빈전〉의 서사단락은 필사본 〈봉빈전〉과 활자본 〈이봉빈전〉을 함께 검토한 최지연의 연구를 토대로 하고 일부 수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필사본 〈봉빈전〉의 형성 시기가 1885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최지연, 『〈이봉빈전〉의 이본 특성과 변개적 성격』,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264~266쪽.) 필사본 〈봉빈전〉 또한 낙장본이지만 〈유봉선전〉보다 서사 전개상 더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품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신이한 힘에 의지하여 자녀를 낳게 된다는 설정, 친한 벗이 자녀들의 혼인을 약속하는 것, 악인의 모해로 인해 미래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유배를 가는 것, 시아버지와 남편이 유배 가는 길에 모두 물에 빠져 연락이 두절 되는 것, 악인이 홀로 남은 여성 주인공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것, 악인의 혼인 강요를 피해 여성 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도주하는 것, 남장을 한 여성 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 국가에 위기가 닥치고 여성 주인공이 남장한 채로 출정하는 것, 용왕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예비 시아버지와 남편이 위기에 빠진 여성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황제가 남녀 주인공 일가에게 벼슬과 상을 내린다는 점 등은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유봉선전>이 <이대봉전>과 그것의 개작인 <이봉빈전>, 즉 <이대봉전>의 자장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는 중간 과정이나 하나의 큰 사건을 구성하는 작은 사건들 층위로 내려가면 작품 간 차이가 있다. <이대봉전> 등에서는 사돈이 될 집안이 악인으로부터 해를 입자 여주인공의 부모가 화병(火病) 등으로 죽게 되는데 <유봉선전>에서는 유봉선의 부모가 큰 이유 없이 작품 초반에 사망한다. 또 <유봉선전>에서는 유봉선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운세가 기울 것을 예견하며 방법을 익히는 데 관심을 보인다. <이대봉전> 등에는 유배 가는 길에 물에 빠진 후 선동의 도움으로 살아난 남성 인물이 약혼자인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토로하는 장면이 없는데, <유봉선전>에는 헤어진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직접 토로하는 장면이 있고, 특히 남성 인물의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 <이대봉전> 등에서는 남 주인공 집안을 모해한 악인과 반란의 주체가 상이하게 서술되는데 <유봉선전>에서는 애초 남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졌던 인물 중 한 명과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 일당 중 한 명이 일치하

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상 〈이대봉전〉, 〈이봉빈전〉, 〈유봉선전〉의 서사를 대비해보았다. 서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중 유사점은 〈유봉선전〉이 〈이대봉전〉의 자장 하에 있는 작품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차이점은 〈유봉선전〉이 〈이대봉전〉의 자장 안에서 형성되었지만, 전체를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이나 관심사를 드러내려 한 지점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대봉전〉 속 장애황의 활약과 〈이봉빈전〉 속 이봉빈의 활약이 국가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봉빈전〉은 필사본 〈이대봉전〉을 모본으로 하여 장애황의 의협서사를 적극 수용하고 군담적 요소를 좀 더 가미하여 유통시킨 작품”²⁵⁾이라고 했다. 세 작품을 대비해본 결과 〈유봉선전〉 또한 〈이대봉전〉의 장애황이나 〈이봉빈전〉의 이봉빈 처럼, 악인의 모해로 몰락한 집안을 회복하고 헤어진 정혼자와 재회하기 위해 분투하는 장애황의 영웅적, 의협적 활약이 돋보이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하였듯이 악인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별에 대한 남녀 인물의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활약 등의 측면에서 〈이대봉전〉, 〈이봉빈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봉선전〉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작품과 〈유봉선전〉을 간략히 대비하였는데, 작자의식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²⁶⁾

25) 김정녀(2014), 앞의 논문, 35쪽.

26) 추후 〈이대봉전〉, 〈이봉빈전〉, 〈유봉선전〉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유봉선전〉의 주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5. 결론

앞서도 말하였듯이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고전소설 습작들이 다수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작품을 발굴, 소개한 연구자들 덕분에 새로운 고전소설이 세상에 존재를 알리고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또한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소설 <유봉선전>을 정리하여 학계에 알리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래서 먼저, 새로 찾은 고령본 <유봉선전>과 존재가 알려졌으나 연구되지 않았던 충남대본 <유봉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경계를 보완하고 필사상의 특징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기존의 언급과 달리 <기연회보록>과 관련한 작품이 아닌 <이대봉전> 계열 소설과 관련이 높은 작품임을 보이기 위해 <이대봉전>, <이봉빈전> 등과 서사 단락 비교를 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익히 알려진 소설 여러 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활용하여 새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기존 화소의 짜깁기이자 20세기 초를 전후하는 고전소설 쇠퇴기의 현상²⁷⁾이라고 보았다. 또 독창적인 서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 소설들을 개연성 부족하게 엮어내는 것을 작자의 역량 미숙²⁸⁾으로 평가했다. 완성도 높은 고전소설 작품들이 새롭게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독서 경험을 합성한 습작이라고 볼 만한 소설들이 다수 등장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이 쓴 소설을 읽거나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완성도는 낮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엮어보고, 자기 관심사를 작품에 반영해보는 능동적인 소설 향유자들이

27) 김진영, 「<김용주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국학연구논총』 11, 태민국학연구원, 2013, 31쪽.

28) 엄태식(2019), 앞의 논문, 134쪽.

상당수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⁹⁾³⁰⁾

고령본에는 중반부 필사기에 이어 작품과 무관한 말들이 쓰여 있다. 이 기록 가운데 “인상의 천권성이라”(고령, 69면)라는 문장이 있다. 고령본 본문이나 필사기와 필체가 다르므로 필사자가 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이 고령본을 쓴 노 소저의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이 책이 필사본으로 향유되던 당시 천 권의 책 이루는 것을 말할 만큼 글에 관심을 가지는 향유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창작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글을 좋아하는 이런 적극적인 향유자들 덕분에 독서와 습작 노력이 쌓여 독자가 작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수준의 책이 생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습작이나 모방작이라고 할 만한 고전소설들이 다수 등장했던 당대의 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완성도나 예술성이라

29) <김일선전>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작품의 표기 혼란 등에 관하여서도 “국문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며 전사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으나, 애초부터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습작 수준의 원고가 유통된 결과일 수 있다.”(엄태식(2019), 위의 논문, 133쪽)라고 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 것이지만, 퇴고를 거치지 않은 습작을 돌려볼 만큼 소설에 관심이 있는 적극적, 능동적인 향유자들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 필사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원작의 일부만을 필사한 ‘발췌본’과 <유봉선전> 형성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해당 의견과 함께 제시한 논문(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발췌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473~501쪽.)에서 다룬 발췌본들은 대체로 원작의 전모를 알 수 있거나 긴 장편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발췌가 필사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유봉선전>은 내용 전체를 현재는 알 수 없으므로, 필사된 부분의 비중을 확정하거나, 현 상태의 것을 의도적인 발췌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본 필사의 중단을 15세 소저인 필사자의 취향,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소박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완질의 파편이기 때문에 그간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발췌본, 낙장본과 같은 것들에 새롭게 주목하면 그것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해당 연구의 말처럼, <유봉선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유봉선전> 필사자들의 의도와 이본의 의의를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좋은 의견을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는 기준보다 시야를 넓혀, 앞으로 이러한 작품에 대한 발굴과 정리가 이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봉빈전〉, 세창서관본, 1933, 1~71쪽.
〈봉빈전〉,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유봉선전〉, 고령 현풍 곽씨 문중 소장본.
〈유봉선전〉,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이대봉전〉, 이윤석, 김경숙 교주, 경인문화사, 2007, 1~485쪽.
- 김경숙, 「이대봉전 이본고-동양문고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 열상고전연구회, 2007, 87~124쪽.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 219~252쪽.
김정녀, 「〈이대봉전〉의 이본 고찰을 통한 소설사적 위상 재고」,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7~42쪽.
김진영, 「〈김용주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11, 태민국학연구원, 2013, 71~109쪽.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쪽.
엄태식, 「〈김일선전〉 연구」,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113~159쪽.
이선형, 「〈기연회봉록〉 연구」,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71~99쪽.
장경남, 「새 자료 〈유장옥전〉 연구」, 『어문연구』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207~230쪽.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7,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1~427쪽.
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발췌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473~501쪽.
최성윤, 「초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 - 박철훈, 『월미도』에 나타난 혼성모방의 성격」,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97~116쪽.
최지연, 「〈이봉빈전〉의 이본 특성과 변개적 성격」,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259~286쪽.

ABSTRACT

A Study on *Yubongseonjeon*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he different versions and the review of related works

Hur, Soon-woo

This study was the subject of analysis of the classic novel *Yubongseonjeon*,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There was a mention of introducing *Yubongseonjeon* held in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s a copy of *Giyeonhoebongnok*, but no specific research was conducted to compare it with *Giyeonhoebongnok*, perhaps because the Chungnam script *Yubongseonjeon* was a lost copy. Recently, I was additionally introduced to the Goryeong edition *Yubongseonjeon*, which has a record of being written by a 15-year-old girl, and I took this opportunity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Chungnam script and the Goryeong edition *Yubongseonje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is work was not related to the *Giyeonhoebongnok*.

Although both the Chungnam script and the Goryeong script are not complete copies, they are expected to be able to make up for each other's shortcomings so I worked on comparing the two books. As a result, it is highly likely that neither book is a draft, and that the Chungnam script is more inclined to accurately use vocabulary and convey information than the Goryeong script, and that the Goryeong script is interested in expressing emotions. It also confirmed that each book can complement the unclear parts of each book.

Next, I thought about what kind of work can b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Yubongseonjeon*. As a result, I confirmed that *Yubongseonjeon* is related to the work of the *Leedaebongjeon* and its similar works, novels featuring female heroes, and briefly compared the narrative paragraphs of the works of the *Yubongseonjeon*, the *Leedaebongjeon* and

Leebongbinjeon.

In the case of the current *Yubongseonjeon* copy, both are jade copies, and the narrative development is not smooth, so it is difficult to see them as well-organized works. However, if a number of practice-level novels or imitative novels were created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will be possible to conduct research to understand the reality by considering them as a cultural phenomenon. Therefore, this study informs basic information on individual works *Yubongseonjeon* and understands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classical novels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 would like to give significance to the fact that it has laid the foundation.

Key Words *Yubongseonjeon*, *Leedaebongjeon*, *Leebongbinjeon*, comparing books, imitative novels, cultural phenomenon

논문투고일: 2025.01.22.
심사완료일: 2025.02.09.
게재확정일: 2025.02.11.

